

## 송병곤(부림사건<sup>1)</sup> 피해자·법무법인 부산 사무장<sup>2)</sup>) 1차 구술

1. 구술자: 송병곤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7월 19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부산
6. 구술분량: 08분46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첫 출근하기까지 과정

구술자 : 그게 이제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출소<sup>3)</sup>하고 난 다음에는 팔십삼(83)년도부터, 팔십삼(83)년 팔(8)월 달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는 그냥 어머니가 끌고 다니는, 몸보신하라고 끌고 다니는 데에 끌리가(끌려가)갖고 한약 먹고 진단 받고 그래 했네요. 그러다가 성탄절에 호철이<sup>4)</sup>가 [감옥에서] 나오고 부림사건 사람들이 다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때 글로(그리로: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호철이가 '야 병곤아,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아니, 뭐 인사는 무슨 인사? 김광일<sup>5)</sup> 변호사님도 아니고 인사를 뭘라(뭘하러) 하는데' '가자, 그래도 고맙잖아' '그래, 가자' 그래가 호철이, 내, 재열이<sup>6)</sup> 세 명이서 인사하러 갔어요. 세 명이서. 그때 부민동에 변호사 사무실 있을 때, 법원이 그쪽에 있을 때, 그래 갔다 아닙니까.

그래 인사하러 가니깐 아마 지금 보면 그거예요. 그때 이제 환영 석방대

- 
- 1)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정권이 이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시 반독재투쟁의 중심이었던 학생들을 용공혐의로 대거 구속함으로써 이들을 대중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사건으로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하였다.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정부 전복집단으로 매도되어 총 22명이 구속되었고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 이들의 변호인단으로 노무현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197쪽 참고
  - 2) 2011년 7월 구술 당시 현직
  - 3) 부림사건에 연루, 1981년 9월 7일 1차로 구속된 구술자는 1983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 4) 이호철을 지칭한다. 부림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1982년 4월에 3차 구속된다. 구술자와 1977년 부산대학 동기이다. 이호철의 구술 일부도 노무현사료관에 공개되어있다.
  - 5) 1970년대부터 부산지역을 대표해온 인권변호사. 제13대 국회의원,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 6) 노재열을 지칭한다. 부림사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구술자와 함께 1981년 9월 7일 1차로 구속됐다. 구술자와 1977년 부산대학 동기이다.

회가 있었을 때라, 석방 환영대회. 석방 환영한다고, 환영회를 한다고 당감성당에서 환영회 날짜도 잡혀 있었고 그때 호철이가 노 변호사님한테 들러서 가자고 해서 들른 거예요. 아마 같은 날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갔는데 의외로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전혀 뭐 이렇게, 그때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 마, 오라고, '앉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커피 주고 '바로 일 정리하고 나갑시다' [하면서] 너무 반가워했어. 그래갖고 '목욕하러 가자' 해갖고 사우나 탁 가가꼬(가서) 그때 처음 가본 거예요. 사우나, 법원 앞에 사우나 가서 다 같이 목욕 짝 하고 '이발해라' 해서 머리로 짧은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가 당감성당 환영회까지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차에] 다 태우고 직접 같이 갔어요. 그게 나는 하루, 같은 날로 기억이 되요. 내 기억은. 그래가 다 같이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노 변호사님이 환영회도 하고 또, 그래도 징역살다 나왔으니까 '때 빠고 광내가(광내서) 환영회 가자' 노 변호사님 생각은 그러셨던 것 같고, 처음 가는 우리는 억수로(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뭔지 모르고 좋았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 환영회를 갔지요.

그래가지고 야, 아따, 당감성당 환영회에서 뭐 자기가 석방된 것처럼 말이야 술을 혼자 다, 술을 그리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따, 나중에는 혼자서 나오셔가지고. 술 취하면 노 변호사님 그런 거 그때 처음 봤네, 술 취하면 이래 춤추시고. 아따, 변호사 만나 싶고 [웃음] 재미있었어요.

당감성당 환영회 마치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갑시다' 이래가 어딜 댔고(데리고) 갔는지 압니까? 빵집이<sup>7)</sup>들을 모조리 다 댔고(데리고), 크라운호텔 나이트클럽으로 가자고, 전부 다. 가실 분들은 전부 다 크라운호텔 나이트클럽으로 다 오라해 갖고(오라고 해서), 그때 진짜 순수한 스무 살 청년, 이십(20)대 초반 청년들이 사우나도 처음 가봤고, 나이트클럽도 처음 가봤네. 그래, 나이트클럽 가가꼬(가서) 후배 몇 명은 앞에 저지당해가(당해서) 못 들어가 갖고(못 들어가서), '형님 저마(저 놈)들이 내(나)를 안 넣어줍시다' 싸움도 하고 데꼬(데리고) 들어가고 그랬다 아닙니까? 나이트클럽 가 갖고 완전히, 완전히 또 거(거기) 안에서 휘저었네요. 지금도 좀 과했죠, 지금 생각해도. 과했는데 재미있기는 재미있었어요. 더구나 그때 또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인사하고 이래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노 변호사님이 '송병곤 씨'라 했는가, '송병곤 군'이라 했는가, '자네'라 했는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여하튼 '사무실에서 나와 같이 일해보

7) 교도소 수감자를 일컫는 속어이다.

지 않겠냐'라고 제안도 그때 했어요. 인사하러 갔을 때.

면담자 :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팔십사(84)년도부터

구술자 : 팔십사(84)년 사(4)월 일(1)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환송회(환영회)가 몇 년, 하여튼 겨울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일을, 그게 같은 날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시 또 한 번 만났는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기억이 안나요. 그건 호철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 돼가지고 사(4)월 일(1)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4)월 일(1)일이 그때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4)월 달 첫날 출근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사(4)월 일(1)일이 내 기억으로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사(4)월 이(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면담자 : 첫 출근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구술자 : 네, 출근해갖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그때는 호철이도 [출근하라] 그러고. 나는 그게 별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게 별로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또 일을 하자니깐 거절을 하기도 또 [내]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호철이에게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일해라, 괜찮겠네' 해서 일한 거예요. 썩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했는데, 노 변호사님이 많이 꼬았다니까(피었다니까). '병곤아, 같이 일을 하면 시민을 위한 법률강좌도 하고 시민을 위한 법률 어떤 요런 해설서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낼 수도 있고.' 아마 그건 진짜였던 것 같아. 노 변호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렇기는 했는데 탐탁치진(탐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근을 했죠. 근데 출근을 하니까 지금 법무법인 국제에 최병두<sup>8)</sup> 사무국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때 최병두 사무장님 그때 사무장[이었어요], 지금 법무법인 국제의 사무국장님은 [노 변호사님] 부산상고 후배예요. 근데 그 사무장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저녁에 퇴근할 때 '내하고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 '어디요?' 이랬지만 '하여튼 따라오면 안다, 가보자.' 그래 가자하면 또 가야죠. 갔더니 양복점을 데리고 갔어요, 양복점을. 양복점을 데리고 가서 '색깔 좋은 것 하나 골라라.'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나는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봐서 좋은 색으로 '최고 고급으로 이거 하나 짝 뽑아주소, 양복' '와 이라는데예(왜 이라는데요)?' '야 임마, 변호사님이 너 양복 하나 해 입히라 하더라. 그래서 아무 소리 말고 해 입어라.' 그래

---

8)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3년 후배. 1982년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1989년까지 사무장으로 재직했다. 최병두의 구술 일부도 노무현사료관에 공개되어있다.

가 참, 노 변호사님이 해주신 양복, 그거 아마 한 일(1)년 반 있으면서 그것만 입고 다녔을 거예요. 봄, 가을로. 양복하나 산뜻하게 해 입고, 그래 출근했네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58. 부산 출생

1981.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1981.09 부림사건으로 구속

1983.08 석방

1984.04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입사

1984.09 – 1985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내 노동법률상담소 근무

1988. 노동법률사무소 복귀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2016년 현재)

부림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60여 일간 불법감금 당한 피해자로 노무현 변호사와 처음 만났다. 부림사건 피해자와 변호인으로서 첫 만남은 자서전 <운명이다>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83년 8월 특별사면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노동법률상담소가 차려지면서 실무책임자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85년 말 사무실을 떠났다가, 1988년 문재인 변호사가 이어 맡은 노동법률상담소로 복귀했다. 2016년 현재까지 법무법인 부산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